



# 농촌 '공공의 적' 멧돼지 사람까지 마구잡이 습격

### 포획 제한·천적 사라져 개체수 급증

### 밀렵 임시허가·서식 환경 조성 필요

멧돼지 습격사건이 잇따르면서 멧돼지가 농촌지역 '공공의 적'으로 떠오르고 있다. 농민들이 애써 키운 논·밭작물을 갉아 먹는가 하면 주택가에 까지 잇따라 출현, 인명피해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멧돼지 습격 잇따라=지난 15일 오전 10시50분경 화순군 동면 논농리 운곡마을에서 주민 최모(76)씨가 자신의 논에서 제초작업을 하던 중 멧돼지로부터 공격을 받았다. 최씨는 "3마리의 새끼와 함께 나타난 길이 2m, 몸무게 250kg가량의 집제만한 어미 멧돼지가 5분간 다리 등을 집중 공격한 뒤 달아났다"고 밝혔다.

최씨는 양쪽 종아리를 물려 5~10cm 가량 상처를 입고 화순 K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해 3월 20일 오후에는 구례군 공의면 구만리 지도암 인근 밭에서 콩을 심던 이 마을 주민 유모(76)씨가 멧돼지

에게 공격당해 전치 2~3개월의 중상을 입었다.

또 2007년 12월 11일 오후 2시50분경에는 순천시 주암면 대구리 상어마을 해발 450m 까치봉 정상 부근에서 등산객 김모(59·서울시)씨가 멧돼지에게 물려 숨졌으며, 2006년 8월 24일에는 안도 생일도에서 몸무게 200kg의 멧돼지가 2~5일 간격으로 염소 20여 마리를 먹어 치워 마을 전체가 '과물 피담'으로 슬럼였다.

올 들어 지난 7월 말 현재 전남지역에서 일어난 멧돼지 피해 등 유해조수 피해능가는 349 가구에 피해액은 11억7천200만원으로 추정된다. 지난해의 경우 937 가구에 피해액은 14억4천900만원이었다.

◇원인은=동물전문가들은 멧돼지의 습격이 이처럼 잦아진 것은 개체수가 엄청나게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포획이 제한된데다 천적이 사라져 멧돼지의 왕성

한 번식력을 제어할 장치가 없다는 것이다. 정확한 조사는 없지만 전국적 멧돼지 수는 20만 마리 안팎에 이를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멧돼지는 초여름에 7~13마리의 새끼를 낳는다.

특히 동물이동 통로의 파괴 등 환경 문제도 멧돼지의 증가 출현 요인으로 꼽힌다. 광주 우치동물원 최중욱 수의사는 "부분별한 개발로 사람과 동물이 사는 영역이 겹치는 곳이 많아졌다"며 "먹이를 찾아 농가로 내려온 게 아니라 길을 잘못 들어 농가에 나타났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대책은 없나=우선 정확한 멧돼지 개체수 파악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동물전문가들의 견해다. 특히 공식 밀렵을 허가하는 등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멧돼지가 산에서 살 수 있도록 생태 환경을 조성해나가는 것도 필요하다.

최 수의사는 "대개 동물의 경우 자연상태에서는 천적이 없더라도 적당한 개체수만 살아남게 된다. 개체수 파악 없이 멧돼지를 무차별 포획할 경우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며 "인간과 동물이 공존할 수 있는 생태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 "코끼리 사육장 돌멩이 치워라"

### 서울 어린이대공원 '돌 투척 사건' 소동에

### 광주 우치동물원 '만일의 사태' 대비 제거

광주 우치동물원이 코끼리 사육장 내 돌멩이 제거작업에 나섰다. 지난 14일 서울 어린이대공원 내 코끼리 사육장에서 '돌 투척 사건'이 일어나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조치를 취한 것이다.

16일 우치동물원에 따르면 직원·사육사 등 10여 명은 지난 15일 동물원 내 코끼리 타기 사육장(면적 165.3m<sup>2</sup>)에서 잔

돌 제거작업을 했다. 수거량은 15kg 가량이다. 우치동물원과 (주)코끼리 월드는 지난해 8월 18일 계약을 체결하고 코끼리 9마리(수컷 2마리, 암컷 7마리)를 들여왔었다.

현재 우치동물원은 코끼리를 관람용(7마리)과 체험용(2마리) 등 두 부류로 나누어 사육하고 있다.

돌멩이 제거작업에 나선 이유는 이를 전 서울 어린이대공원에서 일어난 '돌멩이 투척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코끼리가 지목

됐기 때문이다.

우치동물원은 특히 관람객들이 돌멩이를 사육장에 던질 경우 곧바로 치울 것을 사육사들에게 지시했다. 또 직원들에게 수시로 사육장을 둘러보도록 하는 등 불상사에 대비하고 있다.

우치동물원 관계자는 "이들 코끼리의 경우 어릴 적부터 사육사들에게 길들여져 매우 순하다"면서 "관람객 보호차원에서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예쁘게 절해요” 광주 남구 새마을운동지회는 16일 광주향교에서 관내 다문화가정 이주여성 50여명을 대상으로 ‘추석맞이 예절교육’을 실시했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이 절하는 법과 웃고 매는 법 등을 익히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학교폭력 981건

### 지난해 광주·전남 ... 갈수록 집단화·흉포화

광주·전남지역 초·중·고교에서 지난해에 만 1천여건에 육박하는 학교 폭력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폭력행위가 집단화·흉포화 경향을 보이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상민 자유선진당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 등에서 남겨받은 '2008년 학교폭력 심의건수 및 피해학생 처분현황'을 분석해 1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전국 초·중·고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건수는 총 8천813건으로, 이 가운데 광주·전남은 981건에 이른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천942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1천860건, 부산 877건, 광주 628건, 대구 495건, 인천 449건, 경남 397건,

전남 353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폭력사건 중 가장 많은 유형을 차지한 것은 신체 폭행으로 총 6천198건(70.3%)으로 집계됐고, 그 뒤를 이어 금품갈취 1천645건(18.7%), 집단따돌림 304건(3.4%) 순이었으며 성폭행사건도 71건이나 됐다.

금품갈취나 집단따돌림 사건 등은 2007년에 비해 20%가량 증가한 수치다. 특히 피해학생 1명당 가해학생 수는 2007년 1.6명(가해학생 2만2천908명·피해학생 1만4천190명), 2008년 1.48명(가해학생 2만4천108명·피해학생 1만6천320명)으로 나타나 폭력의 집단화 경향도 뚜렷한 것으로 분석됐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나원침 (7905) 김중두



# 수위 前 경찰관 징역형

광주지법 형사 10단독 양형권 판사는 16일 동료 경찰관에게 사건을 축소하도록 부탁하는 대가로 지인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 간부 강모(43)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동료 경찰관에게 사건 청탁을 하는 대가로 돈을 받고, 그 결과 구속장이 기각된 약식명령으로 사건이 마무리된 점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라고 밝혔다. /최경호기자 choice@

# 농협이사 출마지역 거래 '뒤틀문'

○-광주지법 형사 1단독 박정수 부장판사는 16일 농협 이사선거에서 무투표 당선되기 위해 돈을 주고받으며 출마지역을 안배한 혐의(농업협동조합법 위반)로 기소된 장모(58)씨 등 6명에 대해 징역 4~10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씨 등 4명이 무투표로 당선될 목적으로 같은 지역에 후보자로 등록하려 했던 다른 2명에게 돈을 주고 후보 등록을 하지 않도록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

○-장씨 등은 합법된 영관모 농협 이사 선거를 앞둔 지난해 12월 말께 이사 선거에서 무투표 당선되고 다른 지역 선거에 출마하는 것을 대가로 돈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 가게에 사업증도 못 걸겠네

### 노출된 주민번호 도움

### 전화로 결제 신종 사기

개인 정보가 담긴 사업자등록증이나 영업허가증 등을 사무실에 내걸고 영업하는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신종' 사기극을 벌여온 20대 '게이 중독자'가 경찰에 검거됐다.

16일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사기 등 전과 16범인 김모(26)씨가 광주시 북구 두암동 최모(62)씨가 운영하는 카센터를 찾은 것은 지난 7일 오후 7시께.

김씨는 "타이어를 교체할 건데 기다리는 동안 전화 한 통 쓰겠다"며 사무실로 들어갔다. 사무실 벽에 걸린 사업자등록증에서 최씨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김씨는 사무실에 놓인

일반 전화로 인터넷 게임머니 20만 원어치를 구매해 뒤 "급한 일이 생겼다"며 불과 5분도 안돼 사라졌다. 김씨가 구매한 인터넷 게임머니 비용은 다음달께 최씨의 전화요금 고지서에 포함돼 청구된다.

이처럼 손님을 가장해 사무실에 들어가 인터넷 게임머니와 주유권 등을 다치는 대로 소액결제해 자영업자들을 골탕먹이던 김씨는, 자신의 승용차 번호를 기억한 피해자의 신고로 최근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이 같은 수법으로 최근 한 달 동안 광주지역 카센터, 부동산중개업소, 농기계수리센터 등을 돌며 자영업자 25명에게 총 470만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힌 김씨를 16일 사기 혐의로 입건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리빙 오일 및 피시어유 100% 함유

아이엘리시아

아이엘리시아

0621-671-1199

휴대폰으로 CCTV

SHOW Care

영상모니터링 시스템

파격가 판매!

0621-383-2600